

쇠락과 소멸 속에 드리워진 도시 예술 향연

두번째 도시, 두번째 예술

노명우 지음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상 전 세계가 봉쇄된 상태다. 국내는 물론 국외 여행을 간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사회학자 노명우는 도시의 심층에 숨겨진 예술에 주목한다. 독일 유학시절 현실 밖 예술세계가 그리울 때면 책을 싸들고 낯선 도시로 떠나곤 했다. 고국으로 돌아와 우리말로 글을 쓰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 도시를 찾아간다. 그동안 '세상물정의 사회학', '인생 극장'과 같은 책을 펴냈으며, 현재는 서울 골목길에 작은 서점을 차려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북텐더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발간한 '두번째 도시, 두번째 예술'은 젊은 시절 첫번째 여행과 달리 시간의 지층을 파고들어간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세계적 예술 도시 이면에 펼쳐진 예술의 사회사를 주목한다. '국적과 국경을 뛰어넘은 어느 사회학자의 예술편력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쇠락과 소멸 속에 드리워진 경이로운 예술을 보여준다.

첫번째 행선지는 기원전 3만7천년의 프랑스 아르데슈 지방이다. 지난 1998년 12월 이곳에서 발견된 원시동굴(쇼베 동굴)에는 말, 코뿔소, 사자와 같은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모습과 암석 표면의 성질까지 고려한 작화 기법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저자는 인류 예술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소피아 성당의 남서쪽 나르텍스의 모자이크. 왼쪽은 소피아성당을 성모에게 건네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오른쪽은 콘스탄티노플을 성모에게 건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색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도시는 이스탄불이다. 이곳에서 저자는 신성과 구원의 추구로서의 예술의 본질을 생각한다. 맨 아래 지층에서 보여지는 것은 초기 기독교 예술세계다.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시이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아야 소피아 성당을 세운 곳이기도 하다.

피렌체는 천재들의 도시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보티첼리, 브루넬레스키 등 뛰어난 예술가들을 배출했다. 천재들의 예술영감이 현실에서 꽃피울 수 있었던 데는 후원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피렌체 공화정을 대표했던 길드의 후원으로 다비드 상, 조반니 세레당의 청동문이 탄생했다. 메디치 가문은 막대한 부에 대한

평판을 희석하기 위해 예술에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예술의 도시를 가꾸는데 기여했다.

파리 예술의 특징은 모더니티에 있다. 저자는 이를 현대성, 즉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끊임없이 대체하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혁명 이후 자본주의 질서는 상품 미학의 세계로 전이됐다. 유리 천장에 대리석 벽이 이어지는 파사주를 발전시켰다는 견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는 마네, 드가, 모네, 카유보트 등은 부르주아적 예술을 거부했다. 자신들만의 낙산전을 기획하면서 도시민의 일상을 그렸다. 저자는 이처럼 파리의 현대성 이면에 있는 예술가의 흔적을 주목한다.

〈북인더랩·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슬로싱킹=황농문 서울대재료공학부 교수가 제안하는 새로운 생각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가 말하는 슬로싱킹은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이완 상태를 유지하되, 머리는 생각의 끈을 1초도 놓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는 생각법이다. 슬로싱킹의 원리, 공부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슬로싱킹 장기 몰입의 원칙 11'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준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명량한 강 의 일상과 습격=10여 년간 일본에서만 무려 230만 부가 팔려나간 이사가 고타로의 '명량한 강' 시리즈 중 두번째 권이다. 어떤 거짓말도 알아차리는 나루세, '선동의 달인' 고노, 천재적 두뇌를 지닌 소매치기 구은, '인간 시계' 유키코. 이들이 결성한 4인조 강도단이 환상적 호흡으로 은행을 타는 이야기를 담았다. 〈현대문학·1만4500원〉



▲집값의 거짓말=부동산 정책, 불공정 거래 등을 보도해 온 저자 김원장 KBS 경제팀 기자는 지금까지 과열된 시장일수록 분별력을 가지고 경제의 속성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주택 시장이 느리게 변하는 만큼 솔림이 강하고, 그 솔림이 사람을 강하게 반응해 버블을 만든다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속기 쉬운 부동산 시장의 함정과 시장참여자들

의 탐욕도 들여다본다. 〈해냄출판사·1만6500원〉

▲당신의 아이는 잘못이 없다=소아과 의사이자 아동발달학자인 토머스 보이스 박사는 소위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아이의 예민함은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닌 아이마다 다르게 타고난 '스트레스 반응성'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책은 예민한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살펴야 할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한다. 〈시공사·1만9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충치요괴=주인공 주인공이 충치를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충치의 원인균을 형상화한 '충치요괴' 캐릭터, 충치요괴를 멋지게 물리쳐 주는 치약, 칫솔, 치실 등의 '이 튼튼 삼총사' 캐릭터를 통해 양치질에 대한 흥미를 돋우면서 아이가 양치질을 스스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또 충치로부터 이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릿빛소어린이·1만3000원〉

가슴에 새빨간 핏자국을 남긴 채 사라진 심장도둑을 찾으러 떠난다. 저자는 심장을 잃어버린 미스터리한 사건을 특유의 유머러스한 톤으로 경쾌하게 풀어낸다. 〈논장·1만3000원〉

▲심장도둑=어느 날, 산책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살랑거리던 바람은 책장을 넘길수록 거세진다. 이 하트 바람이 세차게 불자 산책길에 있던 이들의 심장이 쿵쿵 떨어진다. '심쿵'한 이들은 왼쪽

▲가슴 아픈다는 정원= 검은 아스팔트와 회색 벽으로 가득찬 도시에서 어느날 '정원 꾸미기 대회'가 열린다.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을 준다는 포스터가 붙자 너도나도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에 도전한다.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으로 시작해 빌딩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생기고, 주차장은 공원으로 바뀌었다. 책은 혼자서 아니라 맞잡은 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세계적·1만4000원〉

우리의 안전한 '집'은 공감과 연대, 협력 통해 지어야

미아로 산다는 것

박노자 지음

'당신들의 대한민국',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등으로 한국사회를 성찰해온 박노자의 본명은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극동사학과에서 조선사를 전공하고 모스크바대학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01년 한국인으로 귀화해 '박노자'가 됐다. 현재 한국을 떠나 그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전근대성에 근본 성찰을 가능케 한 칼럼을 꾸준히 써 온 그가 새 책 '미아로 산다는 것-워킹푸어의 시대, 우리가 있고 싶은 세계'를 펴냈다.

이번 책에는 가난과 고독이 일상이 된 시대에 스스로 집을 떠나 '미아'가 된 저자가 '외부에서' 한국을 다시 사유하며 써내려간 글들이 담겼다. 그에 따르면 세상은 새로운 가난, 관계 맺기 불능, 사색의 증발, 타자의 혐오가 만연한 시절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미아가 된 구성원들이 연대가 아닌, 혐오로 고통을 벗어나려 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그는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집'은 "공감과 연대, 협력"을 통해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50여편의 다양한 글이 실린 책은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평안함의 대가'에는 '자신'에게 시선을 맞춘 글들이 담겼다. 왜 '탈 러시아', '탈 남한'을 했는지 돌아보며 자신이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 들려준다.

2장 '남아 있는 상처'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내밀한 부분 중 하나인 가족 질서의 실상을 이야기한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산화현된 국가 가운데 가장 반여성적인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는 글이다.

3장 '한국, 급의 사회'에서는 죽음마저도 등급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회 구성원의 존엄할 권리를 절실하게 요구하며 탈학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4장 '과거의 유령들'에서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한국사회가 겪은 상처를 들여다본다. "과거 청산은 예방 접종"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우리가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집단의 복수심이 아니라,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5장 '전쟁이자 어머니인 세계'에서는 나에서 시작된 사유가 세계로 확장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인간 본성에 내재된 질투의 감정을 신자유주의와 연결하고, 전쟁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휘발유와 자동차에 비유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모든 사회가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만연한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한겨레출판·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